

지역사회를 위한 간호원 수급계획과 우리의 자세

본회 총무 윤 수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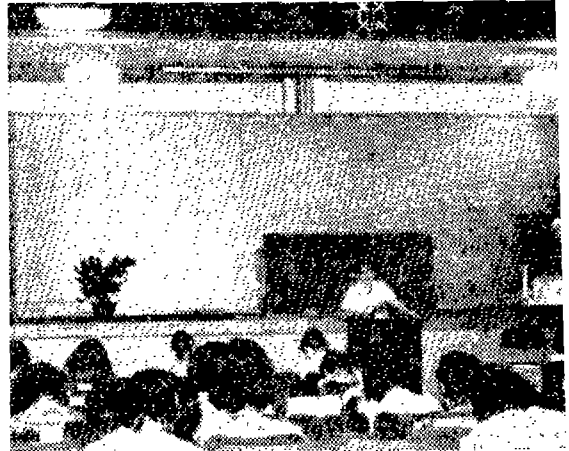
건강이 인간사회에서 절대적인 필수요건인 것을 부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 인간사회에서 사람의 건강이 무엇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모든 사람은 “건강없이 행복없다”는 생의 철칙을 준수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W.H.O. 같은 기구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건강문제가 중대하기 때문에 의료 보건 기관의 이용도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요원의 수급 계획이 문제화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역할을 점유하고 있는 간호 인력의 수급계획은 국민보건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며 이 수급계획은 치밀하고도 타당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몇년 동안 행정부에서 의료보건 요원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특히 간호원에 있어서는 해외진출정책에 수반되는) 간호원의 공급부족을 들 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문교부에서는 간호교육기관의 신설, 정원 증원에 따른 학급 증설 조치, 보건사회부에서는 간호보조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인데 이를 계기로 교육보다 상업적인 수단을 앞세우는 악덕기관들이 난립하여 간호요원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이들 때문에 간호인력 수급 계획에도 크게 문제되는 암력에 부딪치게 되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지금까지 이를 정시하고



<문교부 주최 간호학교 교원 재 강습에서 강연하는 윤수복 총무. 서울의대 간호학과 강당에서>

여기에 다른 문제점들을 계속 연구 검토하여 협회로서의 안을 기획 있을 때마다 주무당국에 제안하였으나 구체적인 간호인력의 수급계획안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일은 없었다.

정부가 장기계획으로 세운 간호원의 수급계획안의 골자는 대략 임상분야는 현행의료법에 준해 입원환자 5 : 2, 외태환자 30 : 1의 비율로, 보건분야는 간호원은 인구 500 : 1, 의사는 1,000 : 1의 비율로 책정되어 결과적으로 의사 : 간호원은 1 : 2의 비율로서 현재 35,000의 간호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수급안은 비밀로서 공개되지 않았으니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이런 중대한 수급 계획안은 행정부와 전문단체, 사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같이 염려하면서 수립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아쉬운 마음 간절하다.

위의 수치는 이상적인 수치이기는 하나 이상과 현실을 절충해서 현실에 맞으면서도 이상적인 안에 접근토록 해야지 이상적인 안에만 치우쳐 전문학적 수자를 내어놓고 있으니 모든 사람은 “간호원 부족”이라는 관념이 머리에 꽂차 있고 이 간호원 부족문제는 여러 인사들이 주야로 머리를 쓰게되고 언론기관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도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원, 의사를 인구대, 몇명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인간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식량의 수급계획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들어내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것이 현실점에 어울리는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의사, 간호원이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는 존재라고는 하지만 식량과 같이 생존의 필수불가결은 아니며 이것은 우리나라가 선진 외국이 아닌 개발도상국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이상론에 치우친 감을 금할 수 없다. 더우기 간호원은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어야지 아무리 국민건강에 필요한 존재라고는 하지만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무료봉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고로 본회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수요되는 간호원수를 산출하고 거기에 대한 수급계획안을 세우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표 1) 간호원 수요수

공무원 간호직수	1,817 (보건소 포함)
보건지소	1,342
학교 양호실	1,076
개인의원	5,402
국군 간호장교	1,000
산업장	180
간호교육기관	400
+) 사립병원	2,500
총 간호원 수요수	13,717
-) 현재 총당수(취업자수)	8,000
현재 부족수	5,717

(표 2)

한국 간호원 면허 소지자 총수	19,700
-) 해외 체류자 총수	4,000
국내 거주 면허 소지자수	15,700
-) 이 중 현 취업자수	8,000
수요수 총당 가능한 비 취업자수	7,700

그러므로 부족수 5,717명을 총당하고도 약 2,000명 정도가 남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표 3)

전국 시도별 간호교육기관, 보건의료기관 및 학교 양호실

시도명	기관 간호교육기관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사립병원	개인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학교 양호실	총기관수
서울	13	7		8	53	2,133	9		391	2,228
부산	5	2		1	27	553	6		26	620
경기	2		7		16	520	25	177	29	776
강원	3		6		12	182	19	90	33	345
충북	1		2		3	151	12	96	43	308
충남	3	1	5		3	330	17	165	46	569
전북	3		4		4	212	16	149	120	505
전남	7	1	3	1	11	402	26	212	133	796
경북	8	1	3	1	9	596	33	230	136	1,017
경남	3	1	2		14	286	26	212	112	656
제주	1		2			37	3	11	7	61
계	49	13	34	11	152	5,402	192	1,342	1,076	8,271

전국 시, 군, 구의 수
 { 군; 139
 시; 30
 구; 15

{ 보건 의료기관; 1970. 12월말 현재
 간호교육기관 및 학교 양호실; 1972년 현재

(표 4) 공무원 간호직급별 현황
(1971년 9월 현재)

직급별	인원수	%
3급 갑	8	0.44%
3급 을	32	1.76%
4급 갑	187	30.32%
4급 을	304	
5급 갑	564	67.48%
5급 을	662	
계	1,817	100 %

(표 5) 보건소 간호직 현황표
(1971년 9월 현재)

기관	3급		4급		5급		합계
	갑	을	갑	을	갑	을	
보건소 직제			9	18	129	289	449

(표 6) 간호원 면허 소지자의 연령별 분포
(1972. 3. 14일 현재)

번호	연령별	연도별	인원수	%
1	20세 이하	1952년 이후	854	4.34
2	21-25	1947-1951	5,660	28.73
3	26-30	1942-1946	5,065	25.71
4	31-35	1937-1941	4,095	20.79
5	36-40	1932-1936	1,791	9.09
6	41-45	1927-1931	1,146	5.82
7	46-50	1922-1926	556	2.82
8	51-55	1917-1921	232	1.18
9	56-60	1912-1916	127	0.64
10	61세 이상	1911년 이전	83	0.42
11	기 타**		91	
계			19,700	100

** 기타; 면허 소지자 총수 19,700명중 91명은 사망 및 생년월일이 기록되지 않은 자.

(표 7) 예상 취업가능 연령표

	면허 소지자	취업가능 (45세 이하)	취업불가 (46세 이상)
수	19,700	18,611명	1,089
%	100	94.48	5.52

** 이 통계에서는 취업할 수 있는 연령군을 45세 이하의 연령군으로 계상함.

1. 현재 간호원 수요수

현재 우리 나라에서 필요한 간호원의 총 수요수는 약 13,717명인데 그 분야별 내용은 (표 1)에 나타나 있으며 전국적으로 간호원이 필요한 기관은 (표 3)과 같다.

(표1)에서 전국 개인위원의 경우 개인위원 1개소에 간호원 1명의 비율로 계상했으며,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간호원 T. O가 없는 실정이나 장래를 대비하여 간호원 수요수를 계상했다.

현 국내 취업간호원수를 약 8,000명으로 보고 이렇게 계산하면 약 5,717명의 간호원의 공급이 부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간호원 부족에 대처하여 다른 간호요원을 양성해야 한다거나 무자격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타당성을 거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한국 간호원 면허 소지자 총수는 19,700명이며 이중 해의 체류자 약 4,000명을 제외하더라도 국내 거주 면허 소지자수는 15,700명이다.

이중 현 취업자수 8,000을 제하면 약 7,700이라는 부족간호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오며, 이것은 전기한 부족수 5,717명을 충당하고도 약 2,000명 정도가 남는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왜 간호원 수급문제에 차질이 오는가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하며 다음의 수급방안을 제시한다.

2. 간호원 수급방안

제1안; 수당 직급개선 등으로 유휴 간호인력을 동원하여 충당하는 방안

간호원이 부족한 곳은 도시보다 농촌 벽지 등이다.

(1) 지방 시도립병원 보건소의 경우

거의가 5급 또는 임시직이다.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보조원도 5급, 간호원도 5급이며 사기 저하 의욕상실 등으로 본연의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가지 않는다.

참조 : 공무원 간호직급 현황

(2) 병원 혹은 개인의원의 경우

ㄱ) 기혼자의 채용을 거부한다.

ㄴ) 야간 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병원근무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벽지수당, 주택문제, 직급인상 등 대우가 개선되고 기혼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제도가 확립되면(시간제) 유희 간호인력은 동원 되리라고 생각한다.

동원할 수 있는 근거 : 면허소지자 19,700명중 45세 미만이 95%다(표6 참조).

가. 취업간호원의 42.04%가 기혼자임.

1971년도 회원 실태조사에 의함(대간 통권 55호).

나. 가장 대우가 저조한 보건소간호원중 80%가 기혼자임(야간근무가 없기 때문에).

서울 9개 보건소의 경우 100%가 기혼자임. 다. 이천 기독교 보건 봉사회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건지소 4개소에(전기 시설은 없음) 간호원 9명중 8명이 기혼자이며 가정을 서울에 두고 주말에만 귀가하고 있는 실정임(평균 자녀수 2-4명).

라. 시내 각 병원에 약 1,000여건의 이력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제출된 것을 예상하고도 약 500여명이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72. 7. 13일 조사).

마.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상 가장 혼자서만의 수입으로는 자녀교육을 시키기 곤란한 실정이므로 특별히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대다수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

바. 금년도 신졸업생 약 2,500명중 현재 약 75%가 취업하고 25%는(약 600명) 취업하지 못하고 있고 미취업자중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72. 7. 15일 조사에 의함).

매년 49개 간호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간호학생수(73년 약 2,900명, 74년 약 3,200명, 75년 약 3,500명)로서 앞으로 충분히 충당될 수 있다.

제2안 ; 장학제도를 실시 의무년한을 부여하여

지방 간호인력 부족수를 증강하는 방안

가. 현재 군에서 소속지 간호학교에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계속한다면 보건소나 지소의 부족문제가 완화될 것이며

(예 : 김천간교에만 군장학생이 100명이라고 하니 이 학교에서만 년 30여명이 배출되는 실정이다)

나. 국립대학교 간호학과에는 수업료 면제에 따라 의무년한이 부여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교육대학 출신들과 같이 필요한 지역에 배령 배치하면 점차적으로 증강될 것이다.

제3안 ; 새마을 사업 정식으로 자세확립을 통해 증강하는 방안.

간호교육기관에서 교육기간중 국민보건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철저히 강조하여 적어도 결혼 전에는 농촌벽지에 가서 국민보건사업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자기 지방은 그 지방간호학교 출신으로 증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세를 확립, 지방 간호인력을 증강한다.

보건의료요원의 수급계획에 따른 간호인력 증강은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하고도 절실한 문제이다. 적어도 현재 필요로 하는 13,000여의 간호원 소요수는 하루 속히 증강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방안인 대우개선책을 판계부처에 제출하였고 참조하겠다는 회신도 받았다.

국가의 경제사정도 어렵겠지만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국민보건을 위해 '성의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정책을 수립해 줄것을 행정당국에 요망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들은 전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정신으로 내고장의 견장은

<표 8> 忠南市, 郡 보건소 간호원 실태

(1972. 8. 10 현재)

<연령별 분포>

연 령(세)	간호원 수(명)	%
20~24	27	30.0 %
25~29	6	6.7 %
30~34	25	27.8 %
35~39	5	5.5 %
40~44	12	13.3 %
45세 이상	15	16.7 %
계	90 명	100.0 %

<결혼 관계>

결 혼 관 계	간호원 수(명)	%
기 혼	65	72.2 %
미 혼	25	27.8 %
계	90 명	100.0 %

<근무 기간>

근 무 기 간	간호원수(명)	%
1 년 미 단	14	15.6%
1년이상~3년미단	17	18.9%
3 " ~ 5 "	11	12.2%
5 " ~ 7 "	7	7.8%
7 " ~ 9 "	15	16.7%
9 " ~ 11 "	17	18.8%
11 년 이 상	9	10.0%
계	90 명	100 %

(* 10년이상 근무자의 경우도, 적답이 5급같이 더, 90명의 전간호원이 5급에 머물고 있음)

내손으로 말아서 해결하는 자세를 확립하여야 하겠다.

최근 간호원들은 해의 진출에 매력을 느끼고 졸업과 동시에 너도나도 해외진출 수속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 자신의 발전은 물론 의학 획득의 정부 시책을 순응하는 일도 되겠지만 우선 내나라 내고장에서 적어도 1-2년 경험을 쌓는 동시에 지역사회간호에 봉사하는것을 사명으로 아는 정신자세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남성은 국토방위, 여성인 간호원은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자세로서 간호인력의 수요수를 충족해야 될줄로 안다.

<각 시, 郡 別 간호인력>

총 143명 (간호원, 간호보조원, 무자격자 포함)

시, 郡명	간호원(명)	간호보조원(명)	무자격자(명)	계(명)	%	결원
1 대전시	18	13**		31	21.7%	
2 천안시	4	7		11	7.7%	
3 공주군	7(보건소 3명 포함)	3		10	6.9%	
4 금산군	5	2		7	4.9%	
5 당진	4	1	2	7	4.9%	
6 대덕	5	2		7	4.9%	
7 논산	6	2		8	5.6%	
8 보령	4	3		7	4.9%	
9 부여	3	4		7	4.9%	
10 서천	5	2		7	4.9%	
11 서산	2	3	1	6	4.2%	
12 아산	5	1		6	4.2%	
13 연기	8			8	5.6%	
14 예산	5	2		7	4.9%	
15 청양	3	3		6	4.2%	
16 천원	5	2		7	4.9%	
17 홍성	1			1	0.7%	
계(명)	90명	50명	3명	143명	100%	
%	62.9%	34.9%	2.2%	100%		

** 대전시의 경우 간호보조원 13명중 6명이 간호원 직급에 있음